

높은 애국심과 강한 투신력을 지닌 실천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비록 힘이 들고 난관이 많다 하더라도 앞날을 생각하며 용감하게 돌진하는 일군이려야 신념이 있고 주체의 인생관이 선 일군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함경북도인민위원회에서 일하는 김덕수동무가 본사편지국으로 보내는 편지는 감동깊은 이야기로 엮여져있었다.
 그는 편지에서 함경북도검찰소 일군인 윤광현동무가 큰

20년전에 침수된 탄광을 복구하기 위한 투쟁에 바친 애국심과 헌신성에 대하여 쓰면서 그의 소행을 널리 소개해줄것을 부탁하였다.
 얼마전 두만강을 지척에 둔 온성창평탄광을 찾았던 우리는 탄광장이며 여기까지 설비, 자재들이 딱 떨어진 공무동력기지와 자재창고, 탄부들의 옷소슬이 가 넘쳐나는 휴게실 등을 돌아다니며 탄광을 복구할수 있는가 하는 걱정이 가슴을 짓눌렀던것이다.
 그는 도당위원회 책임일군과 함께 현지에 나가 실태를 다시 료해하였다.
 폐경된 탄광의 형편에 마음 무거워하는 그에게 도당위원회의 책임일군은 조용히 말하였다.
 《애국자만이 이 탄광을 복구할수 있습니다.》
 순간 윤광현동무는 머리를 벋쩍 들었다.
 애국자, 얼마나 값높은 칭호인가. 당과 수령을 위해, 조국과 미래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는 수많은 애국자들이 자기를 지켜보는데는 같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탄광을 살리겠습니다.》
 그는 탄광복구에서 선우차례를 옮겨 정하고 중심고리에 힘을 집중하면서 완강하게 일만을 벌여나갔다.
 지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의 공들임이 부족했기였다. 탄광이 폐경되면서 탄부들은 물론 기술자, 기능공들도 주변의 공장, 농장들에 옮겨가 일하고있었다. 당시형편에서 탄광이 다시 일어서려하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탄광에서 석탄이 생산되면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다고 한 사람이 한명이 아니었다.
 윤광현동무는 그들의 일러와 가정을 찾아 낮에도 밤에도 쉬임없이 다녔다.
 탄광을 하루빨리 살려 석탄을 캐내야 어버이장군님의 유훈

을 관철하고 당의 강령국가건설구상을 받들수 있지 않는가. 허물없이 마주앉아 진심을 더 놓고 가슴을 치며 열렬히 호소하는 윤광현동무의 정성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 최동규, 신영삼, 윤광현, 리철홍동무를 비롯한 기술자, 기능공들이 탄광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가.
 탄광복구와 석탄생산에 필요한 설비, 자재들을 해결하는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는 함경북도의 시, 군들을 메주뺏듯 하며 리용하지 않거나 못쓰게 된 설비를 실어왔다. 어디에 어떤 설비가 있다고 하면 눈보라치는 날에도,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도 그달음으로 달려가 신고오는 그의 헌신적이고 이룩한 일본래를 두고 사람마다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지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의 공들임이 부족했기였다. 탄광이 폐경되면서 탄부들은 물론 기술자, 기능공들도 주변의 공장, 농장들에 옮겨가 일하고있었다. 당시형편에서 탄광이 다시 일어서려하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탄광에서 석탄이 생산되면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다고 한 사람이 한명이 아니었다.
 윤광현동무는 그들의 일러와 가정을 찾아 낮에도 밤에도 쉬임없이 다녔다.
 탄광을 하루빨리 살려 석탄을 캐내야 어버이장군님의 유훈

을 관철하고 당의 강령국가건설구상을 받들수 있지 않는가. 허물없이 마주앉아 진심을 더 놓고 가슴을 치며 열렬히 호소하는 윤광현동무의 정성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 최동규, 신영삼, 윤광현, 리철홍동무를 비롯한 기술자, 기능공들이 탄광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가.
 탄광복구와 석탄생산에 필요한 설비, 자재들을 해결하는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는 함경북도의 시, 군들을 메주뺏듯 하며 리용하지 않거나 못쓰게 된 설비를 실어왔다. 어디에 어떤 설비가 있다고 하면 눈보라치는 날에도,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도 그달음으로 달려가 신고오는 그의 헌신적이고 이룩한 일본래를 두고 사람마다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지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의 공들임이 부족했기였다. 탄광이 폐경되면서 탄부들은 물론 기술자, 기능공들도 주변의 공장, 농장들에 옮겨가 일하고있었다. 당시형편에서 탄광이 다시 일어서려하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탄광에서 석탄이 생산되면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다고 한 사람이 한명이 아니었다.
 윤광현동무는 그들의 일러와 가정을 찾아 낮에도 밤에도 쉬임없이 다녔다.
 탄광을 하루빨리 살려 석탄을 캐내야 어버이장군님의 유훈

을 관철하고 당의 강령국가건설구상을 받들수 있지 않는가. 허물없이 마주앉아 진심을 더 놓고 가슴을 치며 열렬히 호소하는 윤광현동무의 정성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 최동규, 신영삼, 윤광현, 리철홍동무를 비롯한 기술자, 기능공들이 탄광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가.
 탄광복구와 석탄생산에 필요한 설비, 자재들을 해결하는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는 함경북도의 시, 군들을 메주뺏듯 하며 리용하지 않거나 못쓰게 된 설비를 실어왔다. 어디에 어떤 설비가 있다고 하면 눈보라치는 날에도,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도 그달음으로 달려가 신고오는 그의 헌신적이고 이룩한 일본래를 두고 사람마다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지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의 공들임이 부족했기였다. 탄광이 폐경되면서 탄부들은 물론 기술자, 기능공들도 주변의 공장, 농장들에 옮겨가 일하고있었다. 당시형편에서 탄광이 다시 일어서려하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탄광에서 석탄이 생산되면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다고 한 사람이 한명이 아니었다.
 윤광현동무는 그들의 일러와 가정을 찾아 낮에도 밤에도 쉬임없이 다녔다.
 탄광을 하루빨리 살려 석탄을 캐내야 어버이장군님의 유훈

을 관철하고 당의 강령국가건설구상을 받들수 있지 않는가. 허물없이 마주앉아 진심을 더 놓고 가슴을 치며 열렬히 호소하는 윤광현동무의 정성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 최동규, 신영삼, 윤광현, 리철홍동무를 비롯한 기술자, 기능공들이 탄광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가.
 탄광복구와 석탄생산에 필요한 설비, 자재들을 해결하는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는 함경북도의 시, 군들을 메주뺏듯 하며 리용하지 않거나 못쓰게 된 설비를 실어왔다. 어디에 어떤 설비가 있다고 하면 눈보라치는 날에도,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도 그달음으로 달려가 신고오는 그의 헌신적이고 이룩한 일본래를 두고 사람마다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지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의 공들임이 부족했기였다. 탄광이 폐경되면서 탄부들은 물론 기술자, 기능공들도 주변의 공장, 농장들에 옮겨가 일하고있었다. 당시형편에서 탄광이 다시 일어서려하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탄광에서 석탄이 생산되면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다고 한 사람이 한명이 아니었다.
 윤광현동무는 그들의 일러와 가정을 찾아 낮에도 밤에도 쉬임없이 다녔다.
 탄광을 하루빨리 살려 석탄을 캐내야 어버이장군님의 유훈

을 관철하고 당의 강령국가건설구상을 받들수 있지 않는가. 허물없이 마주앉아 진심을 더 놓고 가슴을 치며 열렬히 호소하는 윤광현동무의 정성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 최동규, 신영삼, 윤광현, 리철홍동무를 비롯한 기술자, 기능공들이 탄광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가.
 탄광복구와 석탄생산에 필요한 설비, 자재들을 해결하는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는 함경북도의 시, 군들을 메주뺏듯 하며 리용하지 않거나 못쓰게 된 설비를 실어왔다. 어디에 어떤 설비가 있다고 하면 눈보라치는 날에도,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도 그달음으로 달려가 신고오는 그의 헌신적이고 이룩한 일본래를 두고 사람마다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지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의 공들임이 부족했기였다. 탄광이 폐경되면서 탄부들은 물론 기술자, 기능공들도 주변의 공장, 농장들에 옮겨가 일하고있었다. 당시형편에서 탄광이 다시 일어서려하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탄광에서 석탄이 생산되면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다고 한 사람이 한명이 아니었다.
 윤광현동무는 그들의 일러와 가정을 찾아 낮에도 밤에도 쉬임없이 다녔다.
 탄광을 하루빨리 살려 석탄을 캐내야 어버이장군님의 유훈

을 관철하고 당의 강령국가건설구상을 받들수 있지 않는가. 허물없이 마주앉아 진심을 더 놓고 가슴을 치며 열렬히 호소하는 윤광현동무의 정성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 최동규, 신영삼, 윤광현, 리철홍동무를 비롯한 기술자, 기능공들이 탄광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가.
 탄광복구와 석탄생산에 필요한 설비, 자재들을 해결하는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는 함경북도의 시, 군들을 메주뺏듯 하며 리용하지 않거나 못쓰게 된 설비를 실어왔다. 어디에 어떤 설비가 있다고 하면 눈보라치는 날에도,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도 그달음으로 달려가 신고오는 그의 헌신적이고 이룩한 일본래를 두고 사람마다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지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의 공들임이 부족했기였다. 탄광이 폐경되면서 탄부들은 물론 기술자, 기능공들도 주변의 공장, 농장들에 옮겨가 일하고있었다. 당시형편에서 탄광이 다시 일어서려하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탄광에서 석탄이 생산되면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다고 한 사람이 한명이 아니었다.
 윤광현동무는 그들의 일러와 가정을 찾아 낮에도 밤에도 쉬임없이 다녔다.
 탄광을 하루빨리 살려 석탄을 캐내야 어버이장군님의 유훈

애국자, 그 부름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지난해 봄이었다. 그즈음 윤광현동무는 번민속에 모태기였다. 눈앞에서는 온성창평탄광의 정경이 지워지지 않았다. 침수된 갯벌, 텅 빈 자재창고, 기초만 남아있는 건물흔적들...
 고난의 시기에 침수로 폐경된 탄광이었다. 여러 단위들에서 탄광을 복구해드리고 시도하였으나 많은 힘이 드는것으로 하여 매년 손을 들고 나왔던것이었다. 그런 탄광을 과연 살릴수 있을가 하는 걱정이 가슴을 짓눌렀던것이다.
 어느 도에서나 마찬가지로 함경북도에서도 세멘트는 긴장한 건설자재들의 하나이다. 어랑천발전소건설과 포항지구중심부건설, 수천세대의 살림집건설 등 도에서 진행되고있는 대건설을 다그치려면 첫째도 둘째도 세멘트가 많아야 하였다. 교무산세멘트공장에서는

석탄이 부족하여 생산을 늘이지 못하고있었다. 함경남도의 고원지구에서 나가 석탄을 받아 함경북도의 한골로 수송하던 날에 윤광현동무의 생각은 깊어졌다.
 《우리 도가 무진장한 석탄을 깔고있는데서 이런 식으로 계속 석탄을 받아올수 없지 않겠나. 더우기 침수된 온성창평탄광을 후대들에게 물려놓지 않는다면 나라앞에 얼마나 큰 죄로 되는가.》
 그는 도당위원회의 책임일군에게 자기의 결심을 터놓았다. 그의 결심은 온성창평탄광을 복구하여 세멘트생산에 필요한 석탄을 보장하자것이였다.
 그때 그에게 무슨 타산이 있은것은 아니었다. 석탄생산이 그 말은 사업분야도 아니고 도 침수된 탄광을 복구해본 경험도 없었다. 심장속에 소중히

석탄이 부족하여 생산을 늘이지 못하고있었다. 함경남도의 고원지구에서 나가 석탄을 받아 함경북도의 한골로 수송하던 날에 윤광현동무의 생각은 깊어졌다.
 《우리 도가 무진장한 석탄을 깔고있는데서 이런 식으로 계속 석탄을 받아올수 없지 않겠나. 더우기 침수된 온성창평탄광을 후대들에게 물려놓지 않는다면 나라앞에 얼마나 큰 죄로 되는가.》
 그는 도당위원회의 책임일군에게 자기의 결심을 터놓았다. 그의 결심은 온성창평탄광을 복구하여 세멘트생산에 필요한 석탄을 보장하자것이였다.
 그때 그에게 무슨 타산이 있은것은 아니었다. 석탄생산이 그 말은 사업분야도 아니고 도 침수된 탄광을 복구해본 경험도 없었다. 심장속에 소중히

석탄이 부족하여 생산을 늘이지 못하고있었다. 함경남도의 고원지구에서 나가 석탄을 받아 함경북도의 한골로 수송하던 날에 윤광현동무의 생각은 깊어졌다.
 《우리 도가 무진장한 석탄을 깔고있는데서 이런 식으로 계속 석탄을 받아올수 없지 않겠나. 더우기 침수된 온성창평탄광을 후대들에게 물려놓지 않는다면 나라앞에 얼마나 큰 죄로 되는가.》
 그는 도당위원회의 책임일군에게 자기의 결심을 터놓았다. 그의 결심은 온성창평탄광을 복구하여 세멘트생산에 필요한 석탄을 보장하자것이였다.
 그때 그에게 무슨 타산이 있은것은 아니었다. 석탄생산이 그 말은 사업분야도 아니고 도 침수된 탄광을 복구해본 경험도 없었다. 심장속에 소중히

석탄이 부족하여 생산을 늘이지 못하고있었다. 함경남도의 고원지구에서 나가 석탄을 받아 함경북도의 한골로 수송하던 날에 윤광현동무의 생각은 깊어졌다.
 《우리 도가 무진장한 석탄을 깔고있는데서 이런 식으로 계속 석탄을 받아올수 없지 않겠나. 더우기 침수된 온성창평탄광을 후대들에게 물려놓지 않는다면 나라앞에 얼마나 큰 죄로 되는가.》
 그는 도당위원회의 책임일군에게 자기의 결심을 터놓았다. 그의 결심은 온성창평탄광을 복구하여 세멘트생산에 필요한 석탄을 보장하자것이였다.
 그때 그에게 무슨 타산이 있은것은 아니었다. 석탄생산이 그 말은 사업분야도 아니고 도 침수된 탄광을 복구해본 경험도 없었다. 심장속에 소중히

석탄이 부족하여 생산을 늘이지 못하고있었다. 함경남도의 고원지구에서 나가 석탄을 받아 함경북도의 한골로 수송하던 날에 윤광현동무의 생각은 깊어졌다.
 《우리 도가 무진장한 석탄을 깔고있는데서 이런 식으로 계속 석탄을 받아올수 없지 않겠나. 더우기 침수된 온성창평탄광을 후대들에게 물려놓지 않는다면 나라앞에 얼마나 큰 죄로 되는가.》
 그는 도당위원회의 책임일군에게 자기의 결심을 터놓았다. 그의 결심은 온성창평탄광을 복구하여 세멘트생산에 필요한 석탄을 보장하자것이였다.
 그때 그에게 무슨 타산이 있은것은 아니었다. 석탄생산이 그 말은 사업분야도 아니고 도 침수된 탄광을 복구해본 경험도 없었다. 심장속에 소중히

석탄이 부족하여 생산을 늘이지 못하고있었다. 함경남도의 고원지구에서 나가 석탄을 받아 함경북도의 한골로 수송하던 날에 윤광현동무의 생각은 깊어졌다.
 《우리 도가 무진장한 석탄을 깔고있는데서 이런 식으로 계속 석탄을 받아올수 없지 않겠나. 더우기 침수된 온성창평탄광을 후대들에게 물려놓지 않는다면 나라앞에 얼마나 큰 죄로 되는가.》
 그는 도당위원회의 책임일군에게 자기의 결심을 터놓았다. 그의 결심은 온성창평탄광을 복구하여 세멘트생산에 필요한 석탄을 보장하자것이였다.
 그때 그에게 무슨 타산이 있은것은 아니었다. 석탄생산이 그 말은 사업분야도 아니고 도 침수된 탄광을 복구해본 경험도 없었다. 심장속에 소중히

석탄이 부족하여 생산을 늘이지 못하고있었다. 함경남도의 고원지구에서 나가 석탄을 받아 함경북도의 한골로 수송하던 날에 윤광현동무의 생각은 깊어졌다.
 《우리 도가 무진장한 석탄을 깔고있는데서 이런 식으로 계속 석탄을 받아올수 없지 않겠나. 더우기 침수된 온성창평탄광을 후대들에게 물려놓지 않는다면 나라앞에 얼마나 큰 죄로 되는가.》
 그는 도당위원회의 책임일군에게 자기의 결심을 터놓았다. 그의 결심은 온성창평탄광을 복구하여 세멘트생산에 필요한 석탄을 보장하자것이였다.
 그때 그에게 무슨 타산이 있은것은 아니었다. 석탄생산이 그 말은 사업분야도 아니고 도 침수된 탄광을 복구해본 경험도 없었다. 심장속에 소중히

우리 나라 4.25남자축구팀과 인도네시아 국가남자축구팀사이의 친선경기 진행

【평양 11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우리 나라 4.25남자 축구팀과 인도네시아 국가남자 축구팀사이의 친선경기가 10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오점철 조선인민군 상장, 인민군장병들, 체육인들, 축구애호가들, 시내 근로자들과 나스리 쿠스마만 주조 인도네시아 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대사관 성원들, 우리 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손님들이 경기를 관람하였다.
 두 나라 선수들이 경기장에 입장하자 관람자들은 박수로 환영하였다.
 두 팀은 시작부터 중간지대를 장악하고 경기주도권을 쥐기 위

한 공방전을 벌였다. 선수들의 박력있는 경기운영과 제치있는 기술에 의해 득점 기회들이 마련될 때마다 관중들의 열을 올렸다.
 이날 경기는 우리 나라 4.25남자축구팀이 2:0으로 이긴 가운데 끝났다.

한 공방전을 벌였다. 선수들의 박력있는 경기운영과 제치있는 기술에 의해 득점 기회들이 마련될 때마다 관중들의 열을 올렸다.
 이날 경기는 우리 나라 4.25남자축구팀이 2:0으로 이긴 가운데 끝났다.

한 공방전을 벌였다. 선수들의 박력있는 경기운영과 제치있는 기술에 의해 득점 기회들이 마련될 때마다 관중들의 열을 올렸다.
 이날 경기는 우리 나라 4.25남자축구팀이 2:0으로 이긴 가운데 끝났다.

한 공방전을 벌였다. 선수들의 박력있는 경기운영과 제치있는 기술에 의해 득점 기회들이 마련될 때마다 관중들의 열을 올렸다.
 이날 경기는 우리 나라 4.25남자축구팀이 2:0으로 이긴 가운데 끝났다.

한 공방전을 벌였다. 선수들의 박력있는 경기운영과 제치있는 기술에 의해 득점 기회들이 마련될 때마다 관중들의 열을 올렸다.
 이날 경기는 우리 나라 4.25남자축구팀이 2:0으로 이긴 가운데 끝났다.

한 공방전을 벌였다. 선수들의 박력있는 경기운영과 제치있는 기술에 의해 득점 기회들이 마련될 때마다 관중들의 열을 올렸다.
 이날 경기는 우리 나라 4.25남자축구팀이 2:0으로 이긴 가운데 끝났다.

한 공방전을 벌였다. 선수들의 박력있는 경기운영과 제치있는 기술에 의해 득점 기회들이 마련될 때마다 관중들의 열을 올렸다.
 이날 경기는 우리 나라 4.25남자축구팀이 2:0으로 이긴 가운데 끝났다.



메히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가 조선로동당 대표단을 만났다

헤수스 안토니오 카를로스 에르난데스 메히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가 7일 당청사에서 이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박근광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석상에서 총비서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김정은 동지께 메히꼬인민사회당 전체 당원들을 대표하여 올리는 인사를 전하겠다고 하였다.

대표단 단장에게 부탁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동지 탄생 100돐을 축하하면서 연설하는 김정은 동지의 모습을 뵈는데 대하여 언급하고 사회주의조선의 미래는 창창하다고 말하였다.
 김정은 동지의 평등과 인민이 사회주의강성국가를 훌륭히 일떠세우려하는것을 확인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메히꼬인민사회당이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

민의 투쟁을 변함없이 지지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메히꼬인민사회당은 반제주, 사회주의리념에 기초하여 조선로동당과의 관계를 계속 강화 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여기에는 메히꼬주제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메히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의 조직비서, 국제비서를 비롯한 당지도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민의 투쟁을 변함없이 지지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메히꼬인민사회당은 반제주, 사회주의리념에 기초하여 조선로동당과의 관계를 계속 강화 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여기에는 메히꼬주제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메히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의 조직비서, 국제비서를 비롯한 당지도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민의 투쟁을 변함없이 지지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메히꼬인민사회당은 반제주, 사회주의리념에 기초하여 조선로동당과의 관계를 계속 강화 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여기에는 메히꼬주제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메히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의 조직비서, 국제비서를 비롯한 당지도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민의 투쟁을 변함없이 지지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메히꼬인민사회당은 반제주, 사회주의리념에 기초하여 조선로동당과의 관계를 계속 강화 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여기에는 메히꼬주제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메히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의 조직비서, 국제비서를 비롯한 당지도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민의 투쟁을 변함없이 지지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메히꼬인민사회당은 반제주, 사회주의리념에 기초하여 조선로동당과의 관계를 계속 강화 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여기에는 메히꼬주제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메히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의 조직비서, 국제비서를 비롯한 당지도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민의 투쟁을 변함없이 지지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메히꼬인민사회당은 반제주, 사회주의리념에 기초하여 조선로동당과의 관계를 계속 강화 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여기에는 메히꼬주제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메히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의 조직비서, 국제비서를 비롯한 당지도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독자의 편지

저는 군사임무수행중 뜻하지 않게 부상을 당한 영예군인입니다. 친부모의 심정으로 저를 따뜻이 돌봐주고있는 사람들을 소개하고싶어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그나마도 사람속에는 자강도은행 송원지점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있습니다.
 몇해전 설명절날 성의껏 준비한 별식과 생활용품들을 안고 저의 집을 찾아온 지배인 리지화동무는 설명절을 함께 쇠자고 하면서 건강상

친부모의 심정으로

태는 물론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알아보는것이였습니다.
 그로부터 그는 종업원들과 함께 본신행명업수행으로 바쁜 속에서도 때없이 저를 찾아와 고부해주면서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언제인가는 저의 병치료를 위하여 수백리 먼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 귀한 약재를 구해오고 저의 건강을 하루빨리 추켜세우기 위하여 별식들도 마련해 가지고 찾아왔던 그들이였습니다.

태는 물론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알아보는것이였습니다.
 그로부터 그는 종업원들과 함께 본신행명업수행으로 바쁜 속에서도 때없이 저를 찾아와 고부해주면서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언제인가는 저의 병치료를 위하여 수백리 먼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 귀한 약재를 구해오고 저의 건강을 하루빨리 추켜세우기 위하여 별식들도 마련해 가지고 찾아왔던 그들이였습니다.

태는 물론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알아보는것이였습니다.
 그로부터 그는 종업원들과 함께 본신행명업수행으로 바쁜 속에서도 때없이 저를 찾아와 고부해주면서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언제인가는 저의 병치료를 위하여 수백리 먼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 귀한 약재를 구해오고 저의 건강을 하루빨리 추켜세우기 위하여 별식들도 마련해 가지고 찾아왔던 그들이였습니다.

태는 물론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알아보는것이였습니다.
 그로부터 그는 종업원들과 함께 본신행명업수행으로 바쁜 속에서도 때없이 저를 찾아와 고부해주면서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언제인가는 저의 병치료를 위하여 수백리 먼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 귀한 약재를 구해오고 저의 건강을 하루빨리 추켜세우기 위하여 별식들도 마련해 가지고 찾아왔던 그들이였습니다.

태는 물론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알아보는것이였습니다.
 그로부터 그는 종업원들과 함께 본신행명업수행으로 바쁜 속에서도 때없이 저를 찾아와 고부해주면서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언제인가는 저의 병치료를 위하여 수백리 먼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 귀한 약재를 구해오고 저의 건강을 하루빨리 추켜세우기 위하여 별식들도 마련해 가지고 찾아왔던 그들이였습니다.

태는 물론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알아보는것이였습니다.
 그로부터 그는 종업원들과 함께 본신행명업수행으로 바쁜 속에서도 때없이 저를 찾아와 고부해주면서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언제인가는 저의 병치료를 위하여 수백리 먼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 귀한 약재를 구해오고 저의 건강을 하루빨리 추켜세우기 위하여 별식들도 마련해 가지고 찾아왔던 그들이였습니다.

태는 물론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알아보는것이였습니다.
 그로부터 그는 종업원들과 함께 본신행명업수행으로 바쁜 속에서도 때없이 저를 찾아와 고부해주면서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언제인가는 저의 병치료를 위하여 수백리 먼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 귀한 약재를 구해오고 저의 건강을 하루빨리 추켜세우기 위하여 별식들도 마련해 가지고 찾아왔던 그들이였습니다.

중국을 방문하였던 국제문제연구소대표단 귀국

【평양 11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중국을 방문하였던 장윤곤 소장을

국제문제연구소대표단 귀국

단장으로 하는 국제문제연구소대표단이 10일 귀국하였다.

평양에서 김을호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이 마중하였다.

평양에서 김을호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이 마중하였다.

평양에서 김을호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이 마중하였다.

평양에서 김을호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이 마중하였다.

평양에서 김을호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이 마중하였다.

평양에서 김을호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이 마중하였다.

평양에서 김을호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이 마중하였다.

평양에서 김을호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이 마중하였다.

평양에서 김을호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이 마중하였다.

평양에서 김을호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이 마중하였다.

평양에서 김을호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이 마중하였다.

평양에서 김을호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이 마중하였다.

